

2008년 결핵환자 현황 ①

-신고환자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008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다. 연보 내용 요약을 통해 지난 한 해 결핵현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환자 유형별 현황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 환자는 총 44,17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90.9명의 신고율을 나타내었다. 환자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환자의 84.5%인 37,309명(인구 10만 명당 76.8명)이 폐결핵이었고, 폐외결핵은 15.5%인 6,867명(인구 10만 명당 14.1명)이었다. 폐결핵 환자 중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는 15,068명(인구 10만 명당 31.0명)으로 전체 신고환자의 34.1%를 차지하였다. 전체 신고 환자 중 신환 34,157명(77.3%), 재발 5,227명(11.8%), 초치료 실패(0.7%), 중단 후 재등록 734명(1.7%), 전입 1,607(3.6%), 만성배균자 60명(0.1%), 기타 2,100명(4.8%)으로 신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환'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자료 분석 시 기타 환자로 분류된 환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재발의 비율이 도말양성 환자 중 15.1%(2,268명), 폐결핵환자 중 12.7%(4,745명), 폐외결핵환자 중 7.0%(482명)의 순이었다.

2008년 신고환자 분포

구분	계	신환	재발	초치료 실패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 배균자	기타	
전체	44,174	34,157	5,227	289	734	1,607	60	2,100	
폐결핵	활동성	37,307	28,344	4,745	289	686	1,407	60	1,776
	도말양성	15,068	11,048	2,268	134	336	543	33	706
폐외결핵	6,867	5,813	482	0	48	200	0	324	

성별, 연령별 현황

신고된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전체 환자의 61.0%인 26,959명(인구 10만 명당 110.4명)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39.0%인 17,215명(인구 10만 명당 71.2명)으로 남자 결핵환자가 여자 결핵환자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70대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 중 9,017명(20.4%)로 가

장 높았고, 이후 40대(7,001명 - 15.8%), 20대(6,807명 - 15.4%), 30대(6,564명 - 14.9%) 순이었다. 결핵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 보면 도말양성 환자에서 남자가 35.9%(9,678명)로 여자 31.3%(5,390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49세 36.7%(2,570명), 50-59세 36.2%(2,309명), 60-69세 36.0%(2,122명), 70세 이상 40.89%(3,680명)로 40대 이상에서 도말양성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신고 환자 중 인구대비 신고 환자를 역시 70대 이상의 고연령군이 인구 10만 명당 281.8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대의 신고율도 인구 10만 명당 94.8명으로 그래프상 1차 피크(peak)를 이루어 여전히 후진국형 결핵 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20대 이후 감소하였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3차 곡선 형태를 보이는 반면, 남자의 경우 20대에 상승한 신고율이 이후 감소하지 않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율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신고기관별 현황

환자를 신고한 기관별 분포를 보면, 보건소 신고환자는 9,791명(22.2%), 민간병원 신고 환자는 34,383명(77.8%)이었다. 민간 병원에서 신고된 환자의 분포를 보면 종합병원이 24,698명(71.8%), 병원이 4,441명(12.9), 의원이 5,244명(15.3%)으로 나타났다. 결핵의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폐외결핵 환자의 비율이 보건소에서 2.3%(225명)에 비해 민간 병원에서 19.3%(6,64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서울이 11,531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경기 6,349명(14.4%), 부산 4,607명(10.4%), 경남 3,110명(7.0%) 순이었다. 이는 환자 신고를 병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신고 환자수가 많은 것이고, 이는 실제 거주 환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신고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신고율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1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인구 10만 명당 123.2명), 서울(인구 10만 명당 114.9명), 대구(인구 10만 명당 106.1명), 대전(인구 10만 명당 101.1명) 순이었다. 실제 거주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신고율은 강원이 인구 10만 명당 1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인구 10만 명당 123.2명), 충남(인구 10만 명당 110.8명), 대구(인구 10만 명당 106.1명), 대전(인구 10만 명당 101.1명)순이었다. 실제 거주 환자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신고율은 강원이 인구 10만 명당 1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인구 10만 명당 123.2명), 충남(인구 10만 명당 110.8명), 경남(인구 10만 명당 109.7명), 대전 등과 같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거주 환자수가 신고환자수보다 적은 반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주 환자수가 신

고 환자수보다 더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추이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전체 결핵환자는 총 44,174명(인구 10만 명당 90.9명)으로 2007년 45,597명(인구 10만 명당 94.1명)에 비해 3.1%(1,423명) 감소하였다. 신환자는 총 34,159명(인구 10만 명당 70.3명)으로 2007년 34,710명(인구 10만 명당 71.6명)에 비해 1.6%(553명) 감소하였다.

전체 결핵환자 중 폐결핵이 37,307명으로 2007년 39,500명에 비해 5.8%(2,283명), 도말 양성 폐결핵이 15,068명으로 2007년 15,420에 비해 2.3%(352명)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폐외결핵은 6,867명으로 2007년 6,007명에 비해 14.3%(860명) 증가하였다.

2001-2008년 신고환자 추이

연도	전체	폐결핵	도말양성	폐외결핵
2001	46,082	41,340	17,098	4,742
2002	43,040	38,121	16,218	4,919
2003	40,500	35,976	15,369	4,524
2004	41,735	37,519	16,264	4,216
2005	46,969	40,614	16,458	6,355
2006	46,284	40,121	15,913	6,163
2007	45,597	39,590	15,420	6,007
2008	44,174	37,307	15,068	6,867

환자구분별 신고 추이에서 기타 환자의 경우 2005년부터 '환자구분확인작업'을 통해 해당 환자를 기타 환자로 재분류하였기 때문에 환자 수가 2004년 318명에서 2005년 2,688명으로 증가하였다. 신고기관별로는 보건소 신고 환자의 비율이 2001년 46.8%에서 2008년 22.2%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민간병의원 신고환자의 비율은 2001년 53.2%에서 2008년 77.8%로 증가하였다. 민간 병원에서 신고된 환자의 분포는 종합병원이 24,698명(71.8%), 병원이 4,441명(12.9%), 의원이 5,244명(15.3%)으로 2007년도의 종합병원 24,565명(69.7%), 병원 4,573명(13.0%), 의원 6,081명(17.3%)의 신고 환자 비율과 비교할 때 종합병원 신고 환자의 비율은 높아진 반면 병원과 의원의 신고 환자 비율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2005년 신고독려사업으로 신고 환자율이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제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이 자료는 2008년 8월 발행된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